

꼬마 설록 을지문덕, 조우관을 찾아라!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

5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 3)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

#을지문덕 #살수대첩 #고구려



사라진 조우관
정명섭 지음 | 이예숙 그림



어느 날, 어린 을지문덕의 아버지는 아끼던 조우관(삼국 시대에 벼슬아치들이 쓰던 관)을 도둑맞습니다. 문덕은 조우관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와에 찍힌 발자국과 수상한 두 사람의 그림자 등 단서들을 따라가며 사건의 정황을 살핍니다. 지혜롭고 강단 있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 을지문덕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책 속에 숨은 역사

1. 위기에 빠진 고구려와 을지문덕의 시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호령한 5세기는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최강자로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6세기에 이르러 강성했던 고구려는 점차 내리막 길을 걷다 결국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맙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을지문덕의 어린 시절은 고구려의 힘이 점차 약해지던 6세기 후반으로 추측됩니다. 을지문덕이 장군으로 활약한 시기는 고구려 25대 왕인 영양왕(재위 590~618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00여 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이 통일된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고구려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수나라는 주변 국가들을 억압했는데 고구려가 수나라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2. 수나라의 침략과 살수대첩

영양왕 9년(598년) 고구려는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합니다. 고구려를 압박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노한 수 문제(수나라의 초대 황제는 30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석 달 만에 패배합니다. 수 문제의 뒤를 이은 수 양제는 612년 113만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침공의 첫 번째 명분이 '고구려가 수나라에 공손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니 수나라가 고구려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을지문덕이 중심이 되어 수나라에 맞섰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의 사기를 확인하고 약점을 찾기 위해 적진에 들어갑니다. 지칠 대로 지친 수나라 부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한 을지문덕은 거짓으로 패배하기를 일곱 번 거듭하여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을 고구려 깊숙이 끌어들었습니다. 그 후 살수에서 가뭄 두었던 물을 터뜨려 수나라 군대를 공격했으나, 30만 대군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2,7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살수대첩이라 합니다. 결국 수나라는 전쟁 패배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1. 충주 고구려비

고구려 영토는 대부분 현재의 북한과 중국 땅입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강성하던 5세기 고구려의 영역은 한강 이남 충주까지 이르렀습니다. 고구려는 이를 기념하듯 멋진 비석을 세워 두었는데, 고구려 멸망 후 세월이 지나며 모두에게서 잊힙니다. 이 비석의 유래를 알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석의 내용을 읽어 보려 해도 도저히 내용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예성 동호회라는 역사 답사 단체에서 우연히 이 비석을 알게 되어 세상에 다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정밀하게 조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선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고구려의 비석이었던 것입니다. 국보 205호로 지정된 충주 고구려비는 높이 203센티미터, 폭 55센티미터, 두께 33센티미터이며, 커다란 자연석을 다듬어 그대로 비면으로 삼았는데 사면에 모두 글이 새겨져 있는 전형적인 고구려 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글씨가 닳아 없어져 앞면과 좌측면 일부의 내용만 확인되었습니다. 지워진 글자가 많아 비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사자’, ‘고모루성’ 등 고구려의 관직과 성의 이름 등이 나옵니다. 또한 충주를 차지한 장수왕 때에 만들어진 비석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시관이 만들어져 비석의 자세한 내용과 고구려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아차산성과 고구려 대장간 마을

한강을 내려다보는 아차산성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차산으로도 불린 이곳 아차산 중턱에는 둘레 1,000미터 이상의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개로왕 21년(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아단성 아래로 압송하여 죽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한강 남쪽의 백제성인 풍납토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장수왕이 보낸 3만 군대가 아차산성을 뒤덮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차산성에서 경기도 구리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산 아래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습니다. 아차산 일대에서 발견한 고구려 유적 중에는 대장간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를 활용해 만든 역사 체험장입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수많은 역사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장소로 이용되고, 작은 전시관을 통해 고구려의 역사를 재미있게 만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3. 온달 산성과 온달 동굴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가면 고구려 장군 온달의 이름을 딴 온달 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강과 주변 지세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온달 산성은 고구려가 아닌 신라의 성입니다. 이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던 고구려 장군 온달이 성을 차지하지 못한 채 화살에 맞아 죽자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부인인 평강 공주가 와서 달래자 그제야 관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라의 성임에도 온달의 이름이 붙은 것은 그때의 안타까움이 깃든 것입니다. 온달 산성 외에도 이 일대에는 온달의 이야기가 지명과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산성 아래의 동굴은 ‘온달 동굴’로 불리며 온달이 쉬었던 곳은 ‘쉬는 돌’, 온달이 쉬면서 힘자랑을 한 바위는 ‘온달 공깃돌’로 불립니다.

4. 전쟁기념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우리 역사 속 전쟁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쟁역사실 1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중기인 임진왜란까지의 전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비롯해 안시성 싸움 등 고구려의 전쟁 역사를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과 각종 무기도 복원 전시하고 있어 강성했던 고구려의 위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와서 무엇을 할까?

1. 수나라 vs 고구려 <역사 인물 카드> 만들기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활약한 주요 인물을 뽑아 카드 앞면에는 이름을 적고 뒷면에는 그들의 역할을 써 봅니다.

수나라 — 수 문제, 수 양제, 우중문, 우문술

고구려 — 영양왕, 을지문덕

2. 을지문덕 시 의미 알아보기

을지문덕 장군이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찾아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원문	현대역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그대의 신기(神奇)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戰勝功既高(전승공기고)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雲止(지족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3. 살수대첩 이후 고구려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거듭된 전란으로 나라의 힘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수나라의 뒤를 이어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당나라의 힘은 수나라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손꼽히는 당 태종 이세민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고구려의 각 성은 당 태종의 깃발 아래 차례차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구려는 위기에 처했지만 안시성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당 태종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니 당 태종은 도망치듯 싸움을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구려의 권력을 잡은 연개소문은 강력한 힘으로 당나라의 공격을 거둬 막아내지만 결국 그가 죽고 나자 연개소문의 아들은 권력 다툼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 당나라는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다시 공격했고 660년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 ★한국어린이출판협회의 '이달의 어린이책' 선정
- ★열린어린이 권장도서
-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